

신생 한자어의 성립 배경

宋 敏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제일본문화연구원 객원교수

현대국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많은 한자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략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 한자어'이고, 다른 하나는 개화기 이후에 갑자기 늘어난 '신생 한자어'이다. '전통적 한자어'란 역사적 한자어로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역대 문헌을 통하여 국어에 수용된 중국어 기원의 단어를 말한다. 그러나 '전통적 한자어'가 모두 중국 문헌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그 중에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단어도 많다. 개화기 이전까지는 이들 '전통적 한자어'만으로도 거의 모든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화기를 전후한 국가의 문호 개방과 더불어 각 분야에 걸쳐 밀려오는 새로운 외래 문물이나 제도 등을 전통적 한자어만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해졌다. 필연적으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생겨난 표현 수단이 곧 신생어인데, 이들은 대부분이 한자어였기 때문에 '신생 한자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 '신생 한자어'에는 반드시 서구 문물의 개념이 응축되어 있어 '전통적 한자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를 일본학자들은 '신한어'(新漢語) 또는 '신문명어'(新文明語), 중국 학자들은 '신사'(新詞)라고 하여 '전통적 한자어'와 구별하기도 한다.

'신생 한자어'의 성립 배경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19세기 80년대 초반, 곧 개화초기 이전까지의 모든 '신생 한자어'는 실물과 함께, 또는 서적을 통하여 국내

에 유입되었는데, 그 출발지는 언제나 중국이었다. 그 일례로서 '즈명종(自鳴鐘), 천리경(千里鏡)'과 같은 단어는 실물과 함께 17세기 전반기에, '화륜선(火輪船), 화륜거(火輪車), 한서표(寒暑表)'와 같은 단어는 진보적 서적을 통하여 19세기 중엽에 국내에 알려졌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즈명종'과 '천리경'은 1631(인조 9)년 정두원(鄭斗源)이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들어갔다가 포르투갈인 선교사 로드리게스(João Rodrigues Tçuzzu, 중국명 陸若漢)를 만나 선물로 얻어 왔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에 따라 '즈명종, 천리경'과 같은 신생어도 정두원을 따라 실물과 함께 국내에 전해졌다.

'화륜선'과 '화륜거'는 미국인 선교사 브릿지맨(Elijah Coleman Bridgman, 중국명 裨治文)의 『미리가국지략』(美利哥國志略, 1838)에 처음으로 나타난다지만(馬西尼 1997),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이들 신생어는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 초간 50권 1844, 증보판 60권 1847, 재증보판 100권 1852, 재재증보판 125권 1895)에도 나타난다. 결국 '화륜선'과 '화륜거'라는 신생어는 『해국도지』와 같은 중국 서적을 통하여 국내에 알려졌으리라고 추정된다. 『해국도지』 초간본은 분명히 국내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李光麟 1974). 실제로 이 책은 『한불증언』(1880)의 표제 항목으로도 그 이름이 나타난다(다만 그 표기는 『海國圖誌』임).

한편, '한서표(寒暑表)'는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중국명 丁韜良)의 『격물입문』(格物入門, 1868)에 처음 나타나는데(馬西尼 1997), 이 신생어 또한 서적을 통하여 국내에 전해진 듯하다. 하여튼 위에 나온 다섯 개의 단어는 모두 『한불증언』(1880)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기원은 분명히 중국어에 연결된다.

이처럼 개화 초기까지 국내에 전해진 신생어의 원천은 중국이었다. 그러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이른바 병자수호조약 또는 강화도조약, 1876)에서 비롯된 대외의 개방정책이 확대되고, 일본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수신사(修信使)를 비롯한 당시의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 상인과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일본 출입이 잦아졌다. 그들은 개화(開化)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의 문물 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서양 문물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자연히 그들이 일본에서 알게 된 '신생 한자어'도 사람을 따라 국내에 유입되었다.

개화 초기인 19세기 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을 통하여 국내에 전해진 '신생 한자어'만 하더라도 그 수량과 범위는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이들은 중국에서 먼저 전해진 신생어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위에 보인 중국어 기원의 신생어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즈명종'은 그런 대로 '자명종'이란 발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으나, '천리경'은 '망원경'으로, '화륜선'은 '기선'으로, '화륜거'는 '기차'로, '한서표'는 '한관계'로 각기 대체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대체형이 예외없이 일본에서 생성된 '신생 한자어'는 아니다.

가령, '천리경'의 대체형인 '망원경'은 게일의 『한영저번』(1897)에 나타나지 않으나('천리경'만 나타남), 『독립신문』(1897년 중)에는 그 용례가 보이므로(朴英燮 1994), 19세기 말경에는 이 신생어가 이미 국내에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에 중국에서 생성된 신생어 가운데 '망원경'이란 어형은 발견되지 않는다(馬西尼 1997). 따라서 국어에 수용된 '망원경'이란 신생어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로는 19세기 80년대에 일본에서 간행된 영일(英日) 사전류에 '망원경'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간행된 각종 사전류에서 '망원경'의 확실한 출전 제시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이번에 문헌을 직접 뒤져 본 결과, 척진팔(尺振八)의 『명치 영화사전』(明治 英和字典, *An English and Japanese Dictionary*, 1884, 동경: 六合館), 붕교일랑(棚橋一郎)의 『영화쌍해사전』(英和雙解字典, *An English and Japanese Dictionary*, 1885, 동경: 丸善商社), 도전풍(島田豊)의 『부음삽도 화역영자휘』(附音插圖 和譯英字彙, *An English and Japanese Lexicon*, 1887, 동경: 大倉書店) 등에는 영어 telescope에 대한 풀이가 '망원경'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다. 적어도 19세기 말엽에는 이 단어가 일본어에 분명히 실재했다는 뜻이 된다.

이 신생어는 한동안 일본에서 먼저 창안되었다고 여겨졌다. 그 근거로서 일본의 난학자(蘭學者) 사마강한(司馬江漢)이 펴낸 『화란천설』(和蘭天說, 1796)에 '망원경'이란 단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신생어를 사마강한이 직접 창안했다기보다 중국에서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청나라의 유예(游藝, 자는 子六)가 펴낸 『천경혹문』(天經或問, 1675)에 '망원지경(望遠之鏡)'이란 어형이 나타나는데다가, 『화란천설』의 범례에 나타나는 "이 책의 전설(全說)은 서유(西儒) 및 자륙(子六) 등의 소설(所說) 가운데 선(善)을 택하고, 비(非)를 버리며..."와 같은 해명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마강한은 서유, 곧 서양 선교사들과 자륙(子六), 곧 유예의 저술을 참조하면서, 그 좋은 것[善]을 택하고 좋지 않은 것[非]을 버렸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가 『화란천설』에서 써먹은 ‘망원경’이란 어형은 유예의 『천경혹문』에 나타나는 ‘망원지경’을 명사형으로 줄여 쓴 결과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망원경’이란 어형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일본에 알려져 있었다. 스위스인 선교사 테렌즈(Jean Terrenz, 중국명 鄧玉函)가 구수(口授)했다는 『원서기기도설록최』(遠西奇器圖說錄最, 1628)의 범례에 『망원경설』(望遠鏡說)이란 책 이름이 제시되어 있는데, 테렌즈의 책 또한 분명히 일본에 전해졌으므로, ‘망원경’이란 어형 또한 일찍부터 일본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佐藤亨 1983). 사마강한이 『화란천설』에서 사용한 ‘망원경’이란 신생어가 유예의 ‘망원지경’에서 직접 왔건,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망원경’에서 왔건, 그 원천은 중국어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결국, ‘망원경’이란 신생어는 개화기에 일본어를 통하여 국어에 들어왔겠지만, 그 근원은 중국어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이러한 성립 배경을 지닌 단어로서 오늘날 한·중·일 3개 국어에서 함께 통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단어가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새삼스럽게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望遠鏡’이란 단어의 표기는 3개국어 같지만(단, 중국의 간체자 표기로는 ‘望远镜’이 되기도 함), 그 발음은 국어로 ‘망원경’, 일본어로 [bōenkyō], 중국어로 [wangyuanjing](편의상 성조 표기는 생략했음)이어서, 말로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다른 단어나 마찬가지로 다. 이를 두고 ‘望遠鏡’이 어느 나라 말이냐를 가린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다만 어휘사적으로 그 생성과 전파 과정을 살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국어에 정착된 신생어의 성립 배경이나 수용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어찌 되었건 개화기 이후 국어에 수용된 ‘신생 한자어’는 거의 일본에서 온 것이다. 그 특징으로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2음절어이며, 어휘론적으로는 ‘번역 차용어’로서 일종의 ‘전문어’에 속한다. 또한 문자 차용이기 때문에 그 발음은 자국어식으로 바뀐다. 문제는 그 조어(造語) 자체가 모두 일본에서 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조어를 통하여 생성된 단어보다는 중국의 역대 문헌에 나타나는 ‘전통적 한자어’를 빌어온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통적 한자어’와 상당히 다르다. 번역 차용 과정에서 의미의 개신이 일

어난 것이다.

‘신생 한자어’ 중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 중국인들이 일본보다 먼저 창안해 낸 것도 적지 않다. 특히 마테오 리치(Mathaeus Ricci, 이탈리아인 선교사, 중국명 利瑪竇)는 17세기 초엽에 벌써 많은 지리학 용어를 창안해 썼으며(荒川淸秀 1997), 알레니(Julius Aleni, 이탈리아인 선교사, 중국명 艾儒略), 버비스트(Ferdinand Verbiest, 벨기에인 선교사, 중국명 南懷仁) 등은 마테오 리치의 용어를 계승 발전시켰다. 이들이 창안한 신생어의 상당수는 일본에 전해졌다가 개화기 이후 국어에도 수용되기에 이르렀는데 본 바닥인 중국에서는 오히려 잊혀진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서양 선교사들이나 중국의 몇몇 선각자들이 다시 많은 양의 새로운 번역어를 창안하여 썼다. 그러한 인물 중, 서양인으로는 모리슨(Robert Morrison, 영국인 선교사, 중국명 馬禮遜), 웨이(Richard Quarterman Way, 미국인 선교사, 중국명 裨理哲), 이미 앞에 나온 마틴(丁韪良), 그리고 홉슨(Benjamin Hobson, 영국인 선교사, 중국명 合信) 등이 있으며, 중국인으로는 임즉서(林則徐), 위원(魏源), 서계여(徐繼畬) 등이 있다. 이들이 창안한 신생어의 대부분은 그때 그때 서적으로 직접 일본에 전해졌을 뿐 아니라, 그 저작물들은 일본에서 즉시 복각이나 번역으로 출판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를 통하여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생어가 상당수 일본에 전해진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들 신생어가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이 서양 문물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지식이 담긴 서적이 별로 읽히지 않은 데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1894)이 끝나면서 사정은 급격히 달라졌다. 많은 유학생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현지에서 익힌 신생어를 중국으로 옮겨갔다. 여기에는 황준헌(黃遵憲), 양계초(梁啓超)와 같은 인물들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옮겨간 ‘신생 한자어’ 중에는 오히려 17세기 혹은 19세기 중엽 중국에서 창안된 후 일단 일본어에 수용되었다가 19세기 말엽 일본에서 또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사례가 많다. 일본어에서 차용되었다고 생각한 이들 신생어가 실은 중국에서 이미 먼저 만들어진 신생어였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되돌아온 단어라 하여 중국에서는 ‘회귀차사’(回歸借詞)라고 부른다.

‘신생 한자어’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거기

다가 밝혀진 사실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아직은 훨씬 많다. 그러나 이들 '신생 한자어'의 성립 배경에 대한 추적 작업은 국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한자어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며, 동시에 문화 접촉이 어휘의 생성이나 의미 개신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馬西尼(원저)·黃河清 역(1997). 『現代漢語詞匯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 上海 : 漢語大詞典出版社. [원서명] Masini, F.(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o. 6,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 朴英燮(1994). 『開化期 國語 語彙資料集 1』(獨立新聞편). 서광학술자료사.
- 李光麟(1974). 『韓國開化史 研究』(개정판). 일조각.
- 佐藤亨(1983). 『近世語彙の研究』. 동경 : 櫻楓社.
- 荒川清秀(1997). 『近代日中學術用語の形成と傳播』—地理學用語を中心に—. 동경 : 白帝社.